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성서~옥포간) 확장에 따른 통행료 할인 조정 건의안

의안 번호	543
----------	-----

제안연월일 : 2009. 7. 16.

제안자 : 방종영 의원 외 1인

1. 주 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가 20km 미만인 구간에 대하여 출·퇴근시간대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20% ~ 50%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 소재한 화원, 달성, 현풍IC간 구간이 20km 이내로 화원 IC~달성IC와 현풍IC 구간이 각각 5km와 17km로써 통행료 할인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들 요금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은 달성1차산업단지와 개별 입주 기업체의 근로자들로써 출퇴근시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서~옥포간 고속국도 확장공사가 2010년 6월 완공되면 기존 서대구~화원IC 구간의 성서, 남대구, 화원 3개의 나들목이 폐쇄되고 기존 화원요금소는 이전되며, 남대구요금소가 신설됨으로써 서대구와 남대구를 이용하여 달성·현풍IC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 인상 및 할인 구간인 20km를 초과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할인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통 지·정체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빠르고 편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의 기능수행을 위해 고속도로의 확장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확장으로 인한 통행료 인상과 무료 통행구간의 유료화 및 주행거리의 증가로 가뜩이나 접근성이 떨어져 출퇴근시 애로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접근성이 취약한 달성 2차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특히 대구테크노폴리스와 대구사이언스파크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될까 심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성서~옥포간 고속도로 확장 구간에 대한 출퇴근 시간대 차량에 대하여 기존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부담 최소화와 지방 및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거리 기준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 제안이유

- 2010년 6월 성서~옥포간 고속국도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서대구와 남대구에서 현풍IC를 이용할 경우 할인구간인 20km를 초과하여 출퇴근 할인율을 적용받지 못함.
- 기존 무료 통행구간의 유료화와 주행거리의 증가로 근로자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이 예상됨.

- 접근성이 취약한 달성2차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현재 추진 중인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사이언스파크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와 근로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거리 기준 등 성서~옥포간 확장구간에 대하여 통행료 조정 건의

3. 참고사항

- 건의안 배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근혜 국회의원, 언론기관 등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성서~옥포간) 확장에 따른 통행료 할인 조정 건의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가 20km 미만인 구간에 대하여 출·퇴근시간대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20% ~ 50%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 소재한 화원, 달성, 현풍IC간 구간이 20km 이내로 화원 IC ~ 달성IC와 현풍IC 구간이 각각 5km와 17km로써 통행료 할인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들 요금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은 달성1차산업단지 및 개별 입주 기업체의 근로자들로써 출퇴근시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서~옥포간 고속국도 확장공사가 2010년 6월 완공되면 기존 서대구~화원IC 구간의 성서, 남대구, 화원 3개의 나들목이 폐쇄되고 기존 화원요금소는 이전되며, 남대구요금소가 신설됨으로써 서대구와 남대구를 이용하여 달성·현풍IC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 인상 및 할인 구간인 20km를 초과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할인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통 지·정체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빠르고 편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의 기능수행을 위해 고속도로의 확장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확장으로 인한 통행료 인상과 무료통행구간의 유료화 및 주행거리의 증가로 가뜩이나 접근성이 떨어져 출퇴근시 애로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접근성이 취약한 달성 2차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특히 대구테크노폴리스와 대구사이언스파크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될까 심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성서~옥포간 고속도로 확장 구간에 대한 출퇴근 시간대 차량에 대하여 기존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부담 최소화와 지방 및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거리 기준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9. 7. 1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확장에 따른 통행료 할인 조정 건의안】

찬 성 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방 종 영	방 종 영	방 종 영
채 명 지	채 명 지	채 명 지
김 기 석	김 기 석	김 기 석
정 종 태	정 종 태	정 종 태
김 순 호	김 순 호	김 순 호
서 정 우	서 정 우	서 정 우
이 석 원	이 석 원	이 석 원
정 명 자	정 명 자	정 명 자